

공정하고 차별없는 교육 실현 강화

도교육청, 전북교육계획 설명회 개최...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교육정책 안내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0일~11일 전북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2019 전북교육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의 실정에 맞는 미래 지향적 교육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10일 교육장, 직속기관장, 학교장(사립유치원장 포함)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오후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담당자, 교감을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일에는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일반직공무원,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3차 설명회를 실시한다.

1차 설명회는 교육국장과 행정국장에게 이어 부서 과장들이 직접 2019 주요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이어진 2차, 3차 설명회는 부서 팀장들이 진행해 실질적인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2019년 주요 정책 및 과제로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 ▲소통과 협력, 건강한 마을 교육공동체를 제시한다.

도교육청의 세부 정책과제는 배움이 즐거운 학생을 위해 안전한 학교, 미래혁신교육과 참된 학력신장을 추진한다.

또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을 위해 교권을 존중하고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강화한다.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해 어깨를 가볍게 하고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를 꾀한다.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을 위해 공정한 교육행

정, 차별없는 교육 실현을 강화한다. 건강한 학교-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해 작은 학교 희망 찾기, 청소년 놀이 공간 확보 등을 추진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 구현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선정했다"며 "오늘 설명회를 통해 각급 학교는 2월 말까지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완료해 3월부터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국종합체육대회 빛낸 3인 선정

김순배 감독 · 이의봉 회장 · 임미영 지도자

바이애슬론 김순배 감독과 전북역도연맹 이의봉 회장, 전북체고 임미영 자전거 지도자 등 3명이 '2018 전국종합체육대회' 유공자로 선정됐다.

이에 김순배 감독은 국무총리 상을 받았고 이의봉 회장과 임미영 지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김순배 감독은 제99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전북 선수단이 종합4위를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바이애슬론 종목은 동계체전에서 금메달 11개와 은메달 7개, 동메달 9개 등 27개의 값진 메달을 획득했다. 그 결과 동계종목의 강도인 강원도와 경기도를 제치고 9년 연속 바이애슬론 종합우승을 달성했다.

이의봉 회장은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역도 선수들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육지원을 아끼지 않은 공을 인정받았다.

선수들의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 시행한 결과 소년체전에서 금메달 6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등 총 8개의 메달을 획득했고, 3관왕 선수도 2명이나 나왔다.

임미영 지도자는 전북 자전거 발전 및 후진 양성을 위해 열정을 쏟고 있다.

특히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등 총 6개의 메달을 목에 걸고 여자고등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영광의 상을 수상하게 된 세 분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전북 체육, 더 나아가 대한민국 체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체육회, 지난해 국비 35억 확보...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 조성 · 삶의 질 향상 노력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가 지난해 약 3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도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위해 지난해 대한체육회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그 결과 약 13개 사업 35억원 가량의 국비를 확보해 도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기금을 확보한 사업을 살펴보면 ▲지방체육진흥사업 ▲대학운동부 지원 ▲학교체육운동부지원 ▲전북스포츠과학센터 ▲선수지변확대지원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 ▲스포츠클럽(무주태권도원 · 고창생물권) ▲여성 ·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사업 등이다.

이처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도민과 함께하는 전북체육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도체육회는 유소년과 청소년, 노인

(어르신), 여성, 다문화 등 체육복지수혜가 모든 계층에게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에 공모했다.

경기운영과와 경기진흥과, 지역지원과, 종목육성과, 클럽육성과 등 도 체육회 전 부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위해 각종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계획 등을 꼼꼼히 수립하는 등 일일동태가 돼 활동을 벌였다.

도 체육회는 다양한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체육을 통한 지역 대통합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올해에도 국비지원 사업 공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체육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육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체육회 전경.

전북대 교수 발간 3권의 책,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박휴용 · 이문근 · 왕은철 교수 펴낸 저서 우수도서로 꼽혀

전북대학교는 박휴용 교수(교육학과)와 이문근 교수(컴퓨터공학부), 왕은철 교수(영어영문학과)가 발간한 3권의 책이 2018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3권의 선정 도서는 박휴용 교수의 '융합 지식과 융합 교육과정' 과 이문근 교수의 '정형기법', 왕은철 교수의 '타자의 정치학과 문화' 등이다. 모두 전북대 출판문화원이 지난해 발간한 책이다.

박휴용 교수의 '융합 지식과 융합 교육과정'은 최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융합적 지식이 미래 인재 양성에 어떻게 기여하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융합 지식에 대한 대중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현장에서 일선 교사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융합수업을 수행하는데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문근 교수의 '정형기법'은 국내 최초의 국문 정형기법 관련 전문 도서다. 각론마다 각 영역의 대표 정형기법 사례를 심층 기술했고, 실질적 예에 대해 공개된 도구를 기반으로 유용성을 강조했다. SW를 개발하는 학생 및 전문가, 산업계에서 요구

되는 정형기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설계 과정에서 정형기법 도구를 이용하여 SW를 정형적으로 명세하고 분석하고 검증할 수 있는 경험을 쌓고, 나아가 그러한 도구를 제품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왕은철 교수의 '타자의 정치학과 문화'는 이슬람이나 아프리카, 영미권 주변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당대 삶의 질서와 가치체계를 짚는다. 20여 년에 걸친 왕 교수의 지속적 관심사를 보여준다. 하미드, 마타르, 아불하와, 쉬라니, 아크판, 톨스, 세이니 등처럼 국내 연구가 전무하거나 거의 없는 작가들은 물론이고 쿿시, 나이폴, 고디머, 레싱 등과 같은 제3세계 출신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들까지 광범위하게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경계'와 '타자'라는 키워드로 문화담론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한다.

한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 사이에 국내에서 발행된 학술도서 4,793종(초판)의 신청 도서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10개 분야 320종을 올해의 학술부문 '세종도서'로 선정했다. 이 도서들은 전국 공공도서관 등 700여 곳에 보급된다.

/장은성 기자

생명 살리는 '사랑의 헌혈' 모두 함께해요

전북교육청, 혈액수급에 어려움 겪는 환자들 돕는 행사 열어

전북교육청은 10일 '2019 상반기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주관으로 도교육청 북문 출입구 앞 헌혈 버스에서 진행됐다.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사랑의 헌혈 행사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새로운 질병의 출현, 각종 사고 등으로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교육청은 동 · 하절기 원활한 혈액 수급에 보탬이 되고자 해마다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헌혈 참여자는 B형 또는 C형 간염, 간 기능 검사 등 개인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봉사시간 4시간도 부여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운동에 참여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전북교육청은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이 10일 '2019 상반기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